“불교가 지닌 본질적 가치, 국민 속에서 구현”

취임사로 본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약속’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사는 역대 총무원장 가운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다.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방향성은 뚜렷하다.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국민 속에서 구현하겠다는 다짐이다. 현대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불교의 정신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하다.

종단 운영 3대 기조와 7대 중점분야, 37개 종책과제를 설정하고 취임사를 통해 각 분야의 실현의지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종단 내실은 다지고 대사회적 소통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 불교중흥을 위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간다는 취지다.

이 모든 약속들이 진우 스님의 취임사에 고스란히 담겼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1만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 단상에 선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다짐을 하나하나 선언했다.

정신문명의 피폐화가 인류 위협
한국불교 위기 극복위한 청사진
국민치유 · 사회적 책임 다짐해

취임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불자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을 넘어 전 인류를 향했다. 특히 현대사회를 위협하고 인류를 고통에 빠뜨리는 분쟁과 갈등, 각종 바이러스 창궐과 기후위기 문제 등에 주목하고 이를 ‘공업(共業)의 인과’ 라고 표현했다.

진우 스님은 “기술의 진보가 우리 인류에게 다양한 삶의 혜택을 가져왔지만 명(明)이 있으면 암(暗)이 있듯이 빈부의 그늘은 깊어졌고, 탐진치 삼독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인간의 이기심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문제와 감염병 창궐 등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기술혁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정신문명은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문명의 피폐화는 지구공동체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발달하는 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불행의 무게가 더해지고 뭇 생명들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취임사에 담긴 수많은 약속들은 고통 받는 중생과 함께하고 치유하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생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불교의 존재 이유이며, 그렇기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려 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경전 문구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현대의 언어로 바꾸어 전달해야 하며, 국민들께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상월결사 평화 걷기 순례를 본보기로 삼아 수행과 명상, 걷기 순례 등으로 국민과 함께 세상의 벗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고통 받는 많은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불교가 다가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종단 차원에서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는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함께하는 불교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스님은 “한국불교는 새로운 중흥의 역사적 갈림길 위에 서 있다”며 “불교중흥의 핵심이 미래세대라는 사명을 갖고 종단의 포교종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단이 청정하고 튼실하며 미래세대들이 불교의 품에 기대어 세상을 설계하고 쉬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종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삶이 곧 불교이며 불교가 곧 삶인 현장 포교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의 전통 수행방식을 현대화하여 다가서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세계적인 명상힐링센터를 건립하고 산사와의 연계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템플스테이로 국민들의 마음 안녕을 위한 고품위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 또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역에 현대적 사찰 기능과 함께 명상, 치유, 문화, 휴식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종합불교센터도 설립할 방침이다.

스님은 “이 모든 과제들은 교단의 핵심 중추인 교구본사 그리고 종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정신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도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취임사에서 “모든 생명에 대한 무량한 자비심으로 지혜의 연등을 밝혀 세상과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는 동시에,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피력한 스님은, 그 일환으로 종교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의 현대화와 불교중흥은 같은 말”이라며 “불교중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교단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중생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이 시대 참 종교의 상을 정립하겠다는 약속이다.

“유구한 세월 동안 밝혀 온 한국불교의 가치는 바로 요익중생(饒益衆生)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결코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평생을 길 위에서 전법을 하신 뜻은 뭇 생명의 요익과 안락, 그리고 평안과 평화를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어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37대 집행부 종책공약

■종단 운영 3대 기조

소 통
신심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과거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겠습니다.
현재의 소통으로 이뤄가겠습니다.

포 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교라는 사명으로
다양한 계층에 맞는 포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교 구
교구의 역할은 한국불교 도약의 지름길입니다.
교구 중심의 종무행정을 제안하고
사회를 향한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7대 중점분야 ■37개 종책과제

수행
인천의 사표가 되겠습니다.
- 승풍진작 교육프로그램 설치 · 운영
- 총림 및 본사 단위 수행결사체 조직 · 운영 지원
- 역대조사 선양사업 실시
- 선원 지원위원회 설립

교구
한국불교의 중심입니다.
- 교구특성 반영한 행정 · 포교 시스템 구축 지원
- 행정 · 인사 교구관할 위한 본 · 말사 시스템 구축
- 말사 주지 임명권 점진적 이양
- 교구특성화전략위원회 구성
- 광역자치단체에 교구거점사찰 설립

포교
사활을 걸겠습니다.
- 도심 내 명상힐링센터 건립
- 권역별 종합불교센터 건립
- 미래세대를 위한 전법위원회 설립
- 계층포교 핵심인력 양성
- 창작기금 적립 및 작가육성 프로젝트 시행
- 포교원 내 불교콘텐츠 전담부서 설치 및 크리에이터 선발
- 지역단위 포교 거점사찰 지정 및 종단 지원 확대

교육
혁신으로 극복하겠습니다.
- 염불 · 단청 · 복장 · 종무행정 등 분야별 전문교육
- 종단 장학 · 해외연수 지원 등 청년 예비출가제도 신설
- 젊은 스님에 맞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도입
- 학인스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권역별 연수시설 ·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승가복지
완전히 실현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통합복지 시스템 구축
- 종단 직영 요양병원 및 요양원 설립
- 권역별 의료 MOU 확대
- 권역별 전통 다비장 설치 및 지원
- 승려복지회의 주요부서화 및 재원마련 법제화 추진

전통 · 문화
꽃을 피우겠습니다.
- 연등회 문화유산전승관 건립
- 전통문화 디지털화
- 성보문화재 관련 콘텐츠 활성화 지원
- 국립공원 정책 전환을 위한 종단 · 정부 상설협의체 구성
- 전통사찰 관련 현안 해결 · 제도 개선

사회
세상의 벗이 되겠습니다.
- (가칭)사회정책기획원 설립 운영
- 불교사회정책포럼 설립 · 대사회 전문인력 양성
- 사회적 약자 위한 복지기능 강화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남북불교 통일 로드맵 구성
- K-불교센터 개설

